

# 류재철 “LG ‘스마트 홈 솔루션’으로 가전 패러다임 바꿀 것”

(LG전자 사장)

IFA2023



UP가전 2.0, 홈 에너지 플랫폼 선봬  
빌트인 등 생활가전 시장 공략 강화  
“글로벌 탭티어 종합 공조업체 도약”

LG전자가 ‘스마트 홈 솔루션’으로  
글로벌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 
내놔다.

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H&A  
(Home Appliance & Air Solution) 사  
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이 2일(현지시  
간) 독일 베를린에서 IFA2023 기자간  
담회를 열고 사업 전략을 제시했다.

사장은 “빌트인을 포함한 혁신적인 생  
활가전 기술과 앞선 에너지 기술, 차원  
이 다른 업(UP)가전 등을 통합한 스마트  
홈 솔루션을 제공할 것”이라며 “더 많은  
고객이 기존에 없던 편리함을 집에서 경  
험하도록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의 패러  
다임을 바꿔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

류 사장은 지난 7월 UP가전 2.0 공개



LG전자 H&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이 2일(현지시간)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IFA 2023에서 관람객들이 LG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.

행사에서 고객을 가사에서 해방시키고  
절약한 시간을 가치있게 보내도록 하는  
것을 기본 사업 방향이라 밝힌 바 있다.  
가전 기능뿐 아니라 무형 영역까지 사  
업을 확대한 스마트 홈 솔루션으로 고  
객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 
것. 조주완 사장 역시 ‘스마트 라이프  
솔루션’ 기업을 선언하며 스마트 라이  
프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고 발표했다.

그 중심에는 고효율 공조 시스템이  
있다. 유럽이 ‘리파워 EU’ 계획을 본격



1일(현지시간)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IFA 2023에서 관람객들이 LG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.

화하는 상황,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히  
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을 앞세웠다. 유럽  
시장 규모가 고속 성장 중, 고효율 인버  
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정과 상업용  
냉난방공조(HVAC) 사업에서 2030년  
까지 글로벌 탭티어 종합 공조업체로  
도약한다는 목표다.

‘LG 스마트 코티지’가 대표 사례다.  
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‘서마브  
이 모노블럭’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대  
폭 줄이고 남은 전력을 가정용 ESS 시

스템에 저장한다.

LG전자는 이번 IFA 2023에서 고효  
율 가전과 에너지 기술을 집약해 차별화  
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‘홈 에너지 플  
랫폼(Home Energy Platform)’도 선보  
인다. 고객들은 ‘LG 씬큐(ThinQ)’ 애플  
리케이션을 통해 가전과 냉난방공조 시  
스템의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, 에  
너지 저장 및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다.

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빌트인 시장도  
공략을 강화한다. 시그니처 키친 스위

트에 이어 매스 프리미엄 제품군을 처  
음 공개하며 불륨존 공략에 나선다. ▲  
유럽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가장 높은  
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갖춘 인스타뷰  
오븐 ▲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인  
A등급보다 10% 가량 효율이 더 높은  
식기세척기 ▲인덕션 중앙에 후드 환기  
시스템이 탑재된 혁신적인 후드 일체형  
인덕션 등 현지에 최적화된 빌트인 주  
방가전 신제품을 선보였다.

스마트홈 솔루션을 위한 UP가전 2.0  
과 가전용 AI칩 DQ-C, 새로운 OS도  
처음 공개했다. 장애인 등도 쉽게 가전  
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‘유니버설 업  
키트’도 선보였다.

LG전자는 이를 통해 ‘모두의 더 나  
은 삶’에 한발짝 더 나아간다는 포부다.

류재철 사장은 “빌트인을 포함한 혁  
신적인 생활가전 기술과 앞선 에너지  
기술, 차원이 다른 UP가전 등을 통합한  
스마트 홈 솔루션을 제공할 것”이라며,  
“더 많은 고객이 기존에 없던 편리함을  
집에서 경험하도록 글로벌 생활가전 시  
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”고 강조  
했다. /김재용 기자 juk@metroseoul.co.kr

## 폴스타, ‘폴스타2’ 최대 1188만원 할인

테슬라등 전기차 가격 경쟁 맞불  
모델에 따라 3000만원 후반대 실구매

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  
타가 폴스타2의 신차 출시를 앞두고 파  
격 프로모션에 돌입한다.

폴스타는 다음달 부분변경 폴스타 2  
출시를 앞두고 기존 폴스타 2를 최대  
1188만원의 할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3  
일 밝혔다. 중국 CATL의 리튬인산철  
(LFP) 배터리를 장착해 전기차 가격  
경쟁을 촉발한 테슬라에 맞불을 놓는  
것이다.

테슬라는 중국산 LFP배터리를 얹은  
모델Y의 가격을 약 2000만원 낮춰 출  
시하며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불씨  
를 당겼다.

폴스타는 오는 10월 말 폴스타2 부분  
변경 신형 출시 전, 소비자 선호를 고려  
해 미리 주문돼 있는 ‘빠른 출고 폴스타  
2’를 15% 할인한다. 롱레인지 듀얼모  
터, 파일럿 라이트 패키지, 플러스 패키  
지, 퍼포먼스 패키지, 통풍 시트 등 옵션  
을 모두 적용한 모델(7926만원)의 경  
우 할인가는 1188만원에 달한다.



폴스타 전기차 ‘폴스타2’ 주행모습.

롱레인지 싱글모터(5490만원) 모델  
은 15% 할인을 적용하면 4666만원에  
구입할 수 있다. 전기차 국고 보조금과  
서울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더하면  
실제 구매 가격은 4049만원으로 떨어진  
다.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 
경기도는 3000만원 후반대로 실구매가  
가 형성된다.

여기에 삼성카드를 차를 구매하면 차  
가격의 최대 16.4%를 캐시백으로 제공  
하고, 선납금 0%, 무이자 등 다양한 금  
융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다. 50만원  
상당의 충전 크레딧, 가정용 충전기 설  
치비 지원, 100만원 상당의 틴팅 및 하

이패스 바우처 제공 등 기존 혜택도 유  
지한다.

폴스타 2는 스칸디나비아 미니멀리  
즘을 반영해 절제되고 고급스러운 디자  
인을 특징으로 한다. 전기차 최초로 티  
맵(TMAP)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  
재했다.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인정받  
은 독보적 안전성에 매력적인 가격 등  
으로 지난해 1월 출시 이후 누적 3000대  
이상 판매를 기록했다. 국내 판매 모델  
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의 삼원계 리  
튬이온 배터리(78kW)를 장착, 334~417  
km 최대 주행거리를 인증 받았다.

/양성운 기자 ysw@

## 한화오션, ‘가스텍’서 친환경 선박 알린다

LNG-FPSO 등 선박 4종 전시

한화오션이 친환경 선박·에너지 관  
련 최고 권위의 전시회인 ‘가스텍2023’  
에 참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액화천연  
가스 및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을 대거  
선보인다.

3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 
서 열리는 ‘가스텍 2023’에 참가해 액화  
천연가스 등 친환경 선박 4종을 전시한  
다. 대표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 
인 그린십 사양이 적용된 LNG운반선,  
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(8만  
6000CBM급),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 
(7만CBM급),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 
건조한 LNG-FPSO 등이다. 이들 선  
박은 한화오션의 최신 기술이 총 망라  
된 선박으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 
증가하며 각광을 받고 있다.

이번 전시회에 함께 참여한 한화파워시  
스템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신규 출범  
한 선박솔루션사업부의 선박 라이프타  
임 서비스, 선박 친환경 개조사업을 소  
개하고 LNG 솔루션 등 한화오션과의  
사업 시너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. 또



로터세일, 탄소포집장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이 대거 적용된 한화오션의 그린십 사양 LNG 운반선 조감도

수소혼소발전 솔루션, 초임계이산화탄  
소(sCO<sub>2</sub>) 발전시스템 및 고압 이산화  
탄소(CO<sub>2</sub>) 압축기 홍보를 통해 친환경  
발전 및 탄소 저감 기술력에 대해 강조  
할 계획이다.

한화오션 관계자는 “한화오션은 지  
속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 무탄소 선박  
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조선 시장의 주  
도권을 확보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 가스텍은 매년 4만명의 관람객  
이 찾는 LNG와 수소, 저탄소 등 가스  
분야 관련 세계 최대 전시회다. 올해는  
9월 5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  
리며, 전 세계 100여개국 750개 이상의  
기업에서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다.

/양성운 기자

## HD현대건설기계, 아르헨·사우디 등 장비 수출 호조

네옴시티 등서 건설장비 73대 계약

HD현대건설기계가 중대형 건설장  
비의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대형  
건설현장, 광산에서 대규모 건설장비를  
잇달아 수출했다.

HD현대건설기계가 최근 아르헨티  
나 리튬 염호광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네  
옴시티 건설 현장에 투입될 굴착기, 휠

로더 등 건설장비 73대를 계약했다고 3  
일 밝혔다..

아르헨티나 살타주 염호광산 조성 및  
리튬 가공 현장에는 이달 중으로 50톤  
급 굴착기 6대, 300마력 휠로더 3대,  
150마력 모터그레이더 4대, 적재중량  
41톤 굴절식덤프트럭 10대 등 총 23대  
를 전달한다. HD현대건설기계는 해외  
서비스망을 비롯해 고도 4000m 이상의

고지대 리튬 염호광산을 새롭게 조성하  
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종의 건설기계  
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능력 등이 수주  
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. 아울러 H  
D현대건설기계는 사우디아라비아 네  
옴시티 ‘더 라인’ 건설 현장에 40톤급  
굴착기 12대, 대용량버킷(5.6m<sup>3</sup>) 휠로  
더 5대 등 50대를 수주해 지난달 중순께  
공급을 마쳤다.

/양성운 기자

## 현대차, 아세안 정상회의 차량 지원

아이오닉 시리즈 346대 운행

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와  
아이오닉 6가 아세안(ASEAN·동남  
아시아 국가 연합) 정상회의 현장을 누  
빈다.

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 
열리는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원활  
한 진행을 위해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 
6를 총 346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.

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제  
4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동남아시아  
주요 10개국이 참여해 ‘아세안의 중요  
성: 성장의 중심’을 주제로 친환경 인프  
라, 디지털 전환, 창조 경제 및 금융 등  
에 대해 논의한다. 현대차는 행사 기간  
의전과 긴급 상황 등 행사 운영 전반에  
걸쳐 활용될 아이오닉 5를 272대, 대표  
단 배우자의 의전 차량으로 활용될 아  
이오닉 6를 74대 지원한다. /양성운 기자